

파시즘이란 무엇인가.<2>

정치장교

움베르토 에코의 파시즘 14계명

1. 전통에 대한 집착
파시스트들이 전통이라 생각하는 것을 집착하고 우상화하며 숭배한다
2. 근대화에 대한 거부
근대화와 그것에 따라오는 발전과 진보를 혐오하고 배척한다
3. 행동 자체의 우상화
행동 자체가 아름답고 훌륭하며, 그렇기에 숭배한다. 사상은 중요치 않다
4. 거부는 곧 반역
주류 의견에 반대하는 행위는 곧 반역이다
5. 다름에 대한 공포
주류집단과 다른자들, 침범하는 자들에 대한 공포가 파시즘의 기본이다
6. 사회적 문제계층에 대한 매혹
파시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문제시되는 계층을 포섭해 기반을 쌓는다
7. 음모에 대한 집착
음모론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며, 주로 외국인이나, 소수민족같은 자들이 타겟이 된다.
8. 적을 강하게 묘사하며 동시에 약하게 묘사한다.
적을 파시스트들만이 무찌를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묘사하지만, 동시에 파시스트들이 손쉽게 무찌를수 있을 정도로 약하게 묘사한다
9. 평화주의는 적과 동조하는 행위다
평화를 언급하는 행위는 적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역행위다.
10. 약자에 대한 멸시
약자는 도와줘야 할 것이 아니라 멸시해야 할 존재다
11. 만인의 영웅화
영웅을 일반화하여 모두가 영웅이 되도록 강요한다
12. 마초이즘과 무기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차별과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배척한다
13. 선택적 포퓰리즘
자신들이 선택한 집단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과 감언이설을 풀어놓는다
14. 특유의 언어체계
자신들만의 특이하고 발전된 언어체계를 구축해 타인들과의 벽을 쌓는다

어제 풀지않은 파시즘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일단 파시즘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자유주의가 특정국가의 이념이 아니듯 파시즘 역시 특정국의 운동, 체제, 이념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시즘은 19세기 이래로 전개된 여러 지적운동을 독자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명백히 유럽의 지적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1차대전이 파시즘이 일부국가에서 집권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와 구체화를 시켰다지만 파시즘은 엄연히 그 이전부터 확산된 이념과 상상, 공포와 절망, 믿음과 욕망의 풍요로운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파시즘은 단순히 전쟁으로인한 불안과 이에따른 심리적 병리현상으로 환원되는 것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파시즘은 맑스주의와 자유주의를 넘어 전체주의적, 유기체적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려했습니다. 파시즘적인 민족 공동체의 건설이 기존 사회의 혼란, 분열, 쇠퇴 속에 몰아넣은 외부의 적을 일거에 퇴치하고 민족과 사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열쇠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점에서 파시즘은 민족혁명의 한 형태이자 제3의길 혹은 제3의 세력으로 볼수있습니다.

파시즘은 근대적 대중정치의 한 부류로서 민족 공동체의 정치, 사회, 문화의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목적으로합니다.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신화적 성격에 있으며, 쇠퇴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가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포스트 자유주의적 질서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 재생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성됩니다.

파시즘은 다양하고 특수한 역사적 환경 속에 각각각색의 면모를 보이지만 여기에 파시즘이란 일반명사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파시즘은 극단적 방법을 동원하여 민족 공동체를 재구성하려함.
1. 지배 엘리트의 혁명적 프로젝트에 대중을 동원하려는 대중주의적 성격.
1. 대중주의를 추동하는 힘으로서 신화적 차원을 동시에 지닌다. 파시즘의 신화는 민족혁명의 역동성과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근본적 힘을 부여함.

파시즘의 정의는 대략 이 세계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신화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신화는 잘못된 믿음이나 황당한 이야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대한 비전과 이미지의 마력을 통해 강한 감성적 에너지를 분출하게하는 힘입니다.

신화는 본질상 분석과 추론의 영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신화는 인간의 온갖 감정을 촉발하는 직감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신화가 발위하는 막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소렐은 인간이 진위 판단 가능성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것을 믿으려하는 경향이 있고 보았습니다. 신화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상상력을 철저히 장악하고 그 감정을 자극하여 실제 행동에 나서게하는 힘의 원천이죠.

요컨데 소렐이 말하는 신화는 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호소하여 대중의 온전한 지지를 확보, 동원할 수 있게하는 원동력이라 분석하였습니다.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의 작동방식과 호소력은 논리의 표면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는 상상의 세계와 이로인해 촉발되는 감정과 믿음, 즉 신화의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신화야말로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환경 속에서 어떠한 주장이 어떻게 표현되고 결합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책, 선전, 문화, 의식, 상징등의 수준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결정합니다.

파시즘의 정치사상은 전통적 정치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판단될 수 없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스스로 파시즘을 사상체계가 아닌 태도로 묘사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민족충배의 틀을 제공하는 일종의 신학이었죠.

두번째 핵심 개념은 극단적 민족주의입니다.
파시즘의 신화는 현재 자기민족이 쇠퇴하 있지만 혁명적 변화를 통해 부활할 것이란 믿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죠.
특정 민족의 쇠퇴나 재생, 부활할 수 있다 믿는 태도는 민족을 유기체적인 것으로 이해했을 때 가능합니다.

민족은 집단적 정신과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그자체가 생활과정을 지니는 것으로 상정된다. 민족의 구성원 들은 세포와 같이 오직 공동체만을 위해 헌신해야한다는 믿음 역시 유기체적 민족주의에서 도출됩니다.
파시즘에서 민족은 개인의 삶을 초월한 높은 존재로 격상되며, 개인의 삶 역시 민족의 활력과 안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때만 의미와 가치를 인정 받습니다.

때문에 파시즘의 신화는 극단적 민족주의로 표현됩니다.

파시즘의 신화는 민족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신화와 쇠퇴하는 민족의 즉각적 부활이 가능하다는 두 신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결합이라말로 파시즘이 발산하는 매력의 원천인 동시에 유례 없는 폭력과 파괴력의 원천이죠.

파시스트들은 이런 신화 아래 자연적이고 합당한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과 이에 적대적인 세력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믿습니다. 파쇼들에게 이러한 이념, 체제, 인간집단에게 가해지는 가공할 폭력은 공동체의 쇠퇴를 막는 치유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파시즘은 폭력 그자체를 재생적인 힘으로 격상시키죠.

그러나 파시즘의 신화가 실현되기위해선 이런 병균(?)들을 색출, 제거하는 작업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유기체의 부활처럼 민족경쟁의 신화를 위해선 파시스트 공동체의 구성원이 새로운 유형의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파시스트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파시즘의 궁극적인 목표중 하나이며, 이런점에서 인간혁명의 성격을 띠니다.

쉽게말해 파시스트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이 탄생할 인간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물질주의적이고 분열적인 기존 존재와 다른 가치관과 역동성 그리고 민족에 대한 헌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간형이다.
빈부와 계급, 정파를 초월하여 조국에 대한 헌신으로 단결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폭력으로 조국을 구원하는 인간, 이러한 제3의 인간형이라말로 파시즘이 실현할 새로운 민족 공동체의 주도적인 엘리트이자 민족의 구성원 전체가 따라야할 새로운 모델로 상정된다.

민족 공동체의 죽을 제거하고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창출함으로써 실험될 극단적 민족주의 신화는 파시즘의 전체주의적 성격과 극단적 남성중심주의 경향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간기에 범계층적 지지를 이끌어낼수 있었던 유일한 대중운동이 될 수 있도록했다.

움베르토 에코가 말하길, 영웅의 일상하다.

파시즘이 목표로하는 파시스트적 인간형은 정치, 경제, 사회, 정신생활등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측면들이 동시에 변화하고그 변화그 권력을 독점할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의히 주도될 때 창출될 수 있다.

파시스트들이 성공여부나 그것이 초래할 폭압적 결과를 불문하고 자신의 운동이 전체주의적이라 자랑스럽게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파시스트적 인간형은 민족방어와 부활을 위해 단호하며 경건하고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적 인간으로 상정된 남성이다. 또한 파시즘은 계급간의 분열과 대립이 사라지고 계급 정체성 대신 민족 정체성으로 단합할 민족 공동체 건설의 신화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집단과 모든 사회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파시즘의 마지막 핵심개념은 혁명이다. 파시즘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띤 민족 공동체를 건설을 목표로 삼는다 할 때 그것은 혁명적 성격 또한 지닌다.

파시스트가 꿈꾸는 민족 공동체는 과거에 존재했던 그 어떤 것도 아니며, 현존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새롭게 창조되어야할 성격의 것이다. 이점에서 파시즘은 시겟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혁명과는 다르며, 마찬가지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와 궤를 달리한다.

파시즘을 보수주의로 흔히 착각하는데 이는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보수주의 세력과 결탁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민족적 영광스러운 과거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적 타협으로 보아야한다. 이들은 권력을 장악한 뒤 보수주의 세력을 제거했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늘 대립과 경쟁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수 역시 권력을 장악하는 시점에서 연합하지만 집권후 파시즘을 제거하거나 순화시킨다.

파시즘이 이른바 건전하고 영광스러운 영웅을 찬양할 때 그것은 그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보다는 이를 발판 삼아 새 시대를 열수 있다는 신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였다. 이점에서 파시즘은 근대와 반근대, 과거와 미래라는 양극을 가진 기계의 모습을 지니지만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상품은 언제나 미래라는 상표를 달고 나타난다. 파시즘은 하나의 혁명이며, 반동적 근대주의나 근대주의적 반근대주의처럼 모순된 조어로 규정되는 이유다.

파시즘이 거부한 것은 새로운 민족 공동체 창조에 방해되는 근대성의 측면일 뿐 근대성 자체가 아니다. 파시즘은 인간들에게 근대화 과정을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려한 시도이다. 파시즘은 근대성의 정복을 통한 독자적 유형의 근대성, 즉 대안적 근대주의를 추구하였다. 파시즘은 창조적 허무주의의 일종으로 규정할 수 있다.

파시즘은 근본적인면에서 기존 경제, 사회 질서를 사실상 유지하면서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영웅적인 부활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문화와 사회문화 변혁에 주력하였다. 파시즘은 이와 같은 문화영역의 혁명을 통해 인간의 가치관과 도덕을 개조하는 의식혁명, 도덕혁명, 정신혁명을 이룰 수 있으며, 한마디로 민족의 대의에 헌신하는 파시스트형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파시즘이 새로운 교의에 열렬한 교도를 창출해내는 세속종교와 같은 행세를하고 거대한 대중집회, 의식,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대중을 개조하고 이에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작업에 골몰한 곳은 바로 문화전반의 변혁을 위한 것이다. 이점에서 파시즘의 정체성을 문화혁명이라 정의할 수 있다.